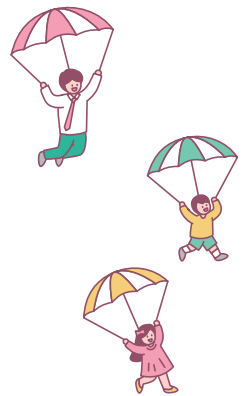


하의 바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열여덟번째 이야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5년도 하반기 돌아보기

주민동아리(꽃지락)



손끝에서 만들어가는 동아리의 이야기

2025년 후원자&자원봉사자 감사의 날 "나눔으로 희망을 피운 우리"



후원자·자원봉사자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

이동복지관 성과보고회



57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주민이 함께한 한해의 성과 공유

주민동아리 노화(NO火)



함께 요리해 나누는 재능, 지역으로 퍼지는 따뜻한 마음

놀:루션(놀이Revolution)



놀 권리를 지키는 건강한 놀이문화

교육문화 배움나눔전 "배움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다"



배움의 순간을 기록하는 공유의 장

우수 사례발표회



이웃보듬팀, 한 해의 사례를 공유하는 성과의 자리

화성비봉NH단지아파트 업무협약



화성비봉NH단지아파트 입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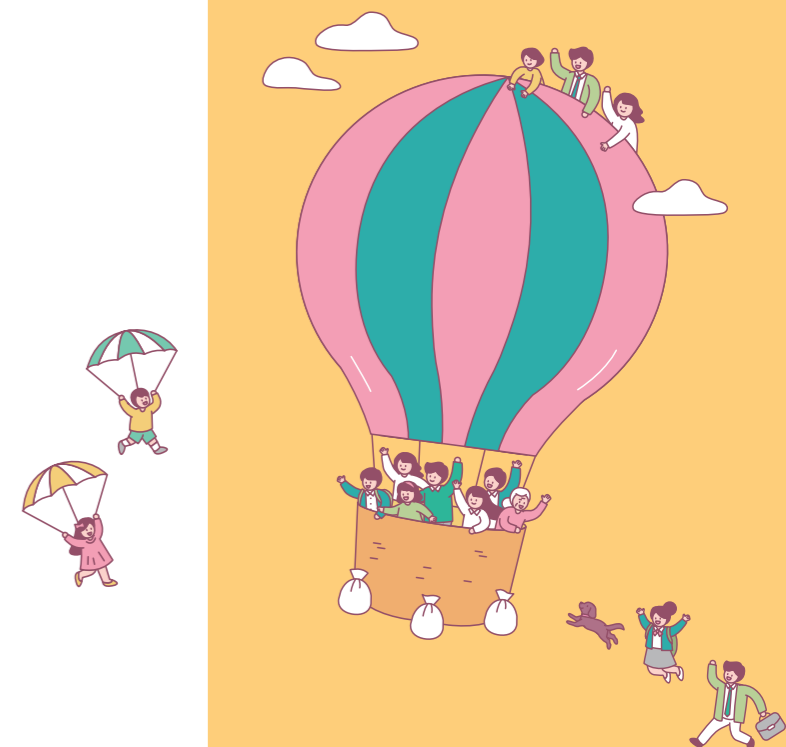
CONTENTS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열여덟번째 이야기 **하늬바람**

♥ 기억을 천천히 꺼내보다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기억, 비봉센터 개관 서부 오늘을 그리다 행복으로 쌓아온 우리의 시간들 말 위에서 발견한 '나'. 그리고 '우리' 함께 쌓은 올해의 기억, 내년을 밝히다	04 05 06 07 08
♥ 그날의 감정이 머무는 자리	인사 한마디로 가까워지는 우리 웃음이 모여 축제가 된 하루 그날의 감동을 만나다	09 10-11 12
♥ 따스히 건네는 우리의 기록	송산면 우리마을 안심 119 국가대표를 꿈꾸는 청소년이 건네는 따스한 이야기 인생이 다음 장을 색칠하다 이동복지관 성과보고회 기록으로 돌아본 시간, 그리고 다음을 향한 걸음 2025년 하반기 후원금·품 내역, 후원자·봉사자 현황	13 14 15 16-17 18 19
♥ FIN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 본관 및 분소 약도	20



하늬바람 열여덟번째 이야기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양도영 **발행처**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전화** 031-366-7390~1
편집 강명은, 김 한, 백가연, 이유나, 최가은 **디자인** 네오아트 032-887-2760
 하늬바람이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뜻하는 순 우리말 표현입니다.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비봉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부복지관의 분소 비봉센터가 지난 7월 23일,
화성비봉LH4단지아파트 안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비봉센터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더 가까이 복지를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그동안 남양센터 운영을 통해 남양읍 주민들과 함께해 왔지만,
비봉면은 거리와 환경의 이유로 복지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봉센터 개소로 이제 비봉면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복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비봉센터는 작은 공간이지만, 주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봉센터가 주민들의 일상 속 쉼터이자
든든한 이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함께 채워나간 오늘, 더 가까워진 우리"

서부복지관 직원들은 오늘, 직원연수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오늘의 우리'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직원연수는 '함께'라는 키워드로 직원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부복지관 직원들이 함께 채워나간 그 특별한 순간들을 소개합니다.

♥ 나를 찾는 힐링day



색으로 소통하고 웃음으로 연결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컬러테라피 팝아트초상화 예술교육"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나의 얼굴을 채워나가며 온전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 당진으로 떠난 힐링day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떠난 "쉽과 웃음이 함께한 우리들의 추억여행"
"일상을 벗어나 동료들과 함께 채워나가는 행복한 휴식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 서로를 바라보고 마음을 채운
오늘의 경험은 우리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우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부복지관 직원들은 오늘의 기억을 발판 삼아, 이용자와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동행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으로 쌓아온 우리의 시간들”

장애아동 가족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기 위한 ‘두빛나래’에서는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부모의 변화, 그리고 가족이 함께 지은 웃음은 우리의 시간을 행복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성장하는 부모

아이를 이해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며 부모는 또 다른 의미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교육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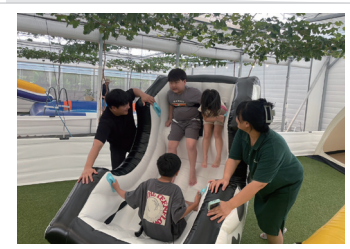
웃음 짓는 아이



아이들은 놀이와 체험을 통해 세상을 만났고, 또래와 관계를 맺으며 자라났습니다. 작은 도전과 성취의 순간들이 쌓여 아이들의 하루는 조금씩 더 밝아졌고 아이의 웃음은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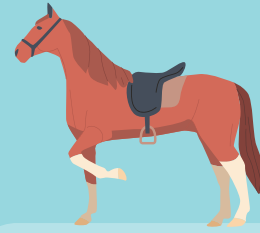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한 나들이와 체험활동은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웠던 ‘함께함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두빛나래는 앞으로도 장애아동과 가족이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으로 쌓아갈 모든 순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말 위에서 발견한 ‘나’, 그리고 우리

- 치유농업서비스 승마활동 -



지난 7월, 아동청소년센터에서는 공평캠프승마장의 치유농업서비스로 승마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이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단계별 체험에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말 밥주기, 산책하기, 씻기기, 교감하기, 승마활동 등의 체험으로 말과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배려와 책임을 배우고 타인과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성과 교감 능력을 향상시키며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사업은 공평캠프승마장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쌓은 올해의 기억, 내년을 밝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25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보호자 간담회&교육'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을 맞아 2025년을 돌아보고 2026년 더 나아가는 주간보호센터를 만들기 위해 보호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보호자 간담회> - 센터의 한 해를 나누고, 의견을 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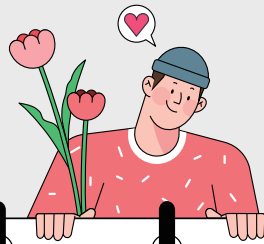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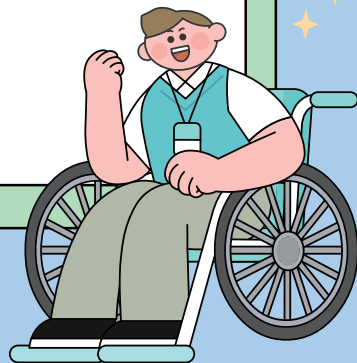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2026년 운영 방향을 안내하며 센터의 변화와 계획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보호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센터 운영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제안을 나누는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보호자 교육> - 마음돌봄 예술치료로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

이어진 보호자 교육에서는 '마음돌봄 예술치료'를 주제로 보호자들이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가며 잊고 지냈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라는 존재를 회복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위로를 건네는 따뜻한 모습이 이어졌으며 보호자 간 지지와 공감 속에서 마음이 연결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의 참여와 격려는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센터와 보호자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이번 만남을 바탕으로 2026년에도 더 나은 서비스로 보호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한 시간의 온기가 새해에도 따스히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일상에서 시작하는 인사,
주민 참여형 인사캠페인 **"한마디로 가까워지는 우리"**

"인사 한마디로 가까워지는 우리"



2025년 7월부터 복지관 해마루식당과 송산초등학교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건네는 인사 한마디가 주민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미소만 건넨던 분들도, 몇 번의 캠페인이 이어지자 자연스럽게 먼저 손을 흔들거나,

"수고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관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느 순간부터 직원뿐 아니라 서로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합니다.

"오늘 반찬 맛있네", "요즘 아픈 데는 없지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대화가, 작은 인사로부터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인사캠페인은 활기찬 학교길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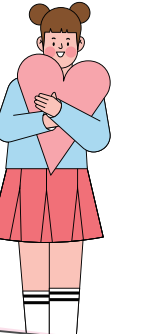
아이들은 점점 인사에 익숙해져갔고, 지나가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도 늘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인사하는 마을'**의 모습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났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가볍게 두드리는 인사 한마디가 이웃과 가까워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는 용기가 모여 우리가 사는 마을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웃음이 모여 축제가 된 하루”

첫 번째 이야기, 청소년 축제

아침 등굣길, 학생들이 교문을 향해 들어오는 시간은 늘 분주하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복지관 직원들과 학생회 친구들이 함께 서서 작은 간식과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 파이팅!”

불과 몇 초의 만남이었지만, 아이들은 손에 간식을 꼭 쥐고 웃음을 띠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오렌지 주스를 들고 **“고마워요!”**라며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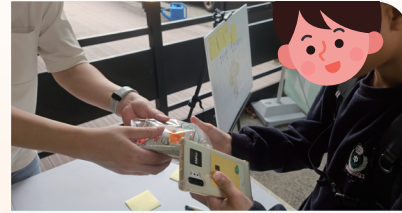
송산, 서신, 마도, 비봉, 화성시 서부권역 4개 중학교에서 진행된 청소년 축제는 짧았지만, 확실하게 응원을 전했고, 아이들의 하루를 조금 더 밝게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다문화 축제

다른 언어, 다른 음식, 다른 옷이지만, 같은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 올해 다문화 축제는 그 사실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함께 즐긴 다른 나라의 전통 놀이와 손 공예, 스탬프를 하나씩 찍어가며 부스를 돌아다니는 동안 어느새 낯선 느낌이 사라지고 **“이건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이 옷 입고 사진 찍어도 돼요?”** 자연스러운 질문과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주민이 함께한 그날, 가장 많이 들렸던 말은 **“재미있다”, “신기하다”** 그리고 **“또 하면 좋겠다”** 였습니다. 문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통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역주민 축제

아침부터 마을회관으로 하나둘 모여드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장을 치고, 의자를 놓고, 카메라를 세우자 작은 회관 안에는 잔잔한 기대와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장수사진 촬영이 시작되자 서로 **“이 옷이 더 잘 어울려요”, “단추 잠궈드릴게요”**하며 자연스레 도와주는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촬영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에코백을 꾸미며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고, 따뜻한 차 한잔에 오랜 기억을 함께 꺼내기도 했습니다. 조용한 회관은 어느새 웃음소리가 가득한 ‘작은 잔치’가 되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웃고, 묻고, 답하는 시간들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하루를 남겼습니다.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소한마을축제”**



소소한 마을축제의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사람이 만나고, 눈을 맞추고, 서로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들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마을에 충분히 따뜻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서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복지관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만나다



지역 내 초등학생들의 마을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 프로젝트
"Hi-스토리(里) : 마을의 역사를 만나다"

서부복지관에서는 아이들이 마을의 역사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을을 이해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역 내 초등학생들의 마을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 프로젝트 "Hi-스토리(里) : 마을의 역사를 만나다"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비밀결사대가 되어 송산 독립운동가 마을의 이곳저곳을 탐방하고 직접 독립운동가가 되어 만세운동을 재현해보았습니다.
또한, 만세운동 영상을 촬영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역사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활동을 즐거워하였고 '우리 마을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시회를 관람한 지역주민들은 '3.1절에는 태극기와 유관순 열사가 생각났는데, 이제는 송산도 생각이 날 것 같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써 주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자랑스럽다.' 등 우리 마을의 역사를 인식하며 뿌듯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Hi-스토리(里)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지역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를 다시 한 번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사교육



마을탐방



영상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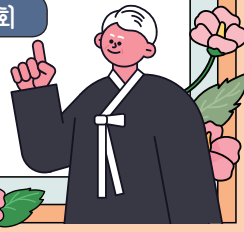


영상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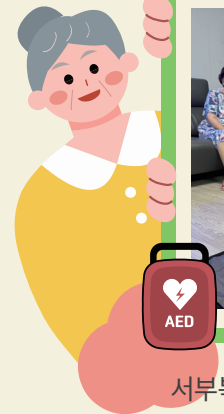
전시회

본 사업은 여송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화성특례시 서부권 취약마을의
응급안전망 구축과 경로당 공동체
소통 공간 조성 사업

“송신면 119 안심 경로당”



서부복지관은 9월부터 10월까지 송산면 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송산면 119 안심 경로당」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 스스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경로당을 마을 안전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육일리, 사강2리, 사강3리, 중송1리, 중송2리 총 5개 경로당에서는 전문강사와 함께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소화기 사용법을 중심으로 한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심정지 발생 시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만, 여러 번 해보니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계가 없어도 손으로 먼저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반복 실습을 통해 주민들은 응급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직접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쌓아갔습니다.

교육과 함께 각 경로당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고, 회관용 소화기와 가정용 소화기를 함께 배포하여 경로당과 가정 모두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의 이름표(현판)를 5개 경로당에 설치하여, 해당 경로당이 응급대응 기반을 갖춘 “송산면 119 안심 경로당”임을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송산면 내 37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실외형 천막을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천막이 설치된 이후 주민들은 “그늘이 생기니 잠시 앉아 이야기 나누기 좋다”, “경로당 주변에서 쉬었다 가는 시간이 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천막은 경로당 이용 시 불편함을 줄이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송산면 119 안심 경로당」 사업은 장비를 설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민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살피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서부복지관은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위급한 순간에도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산그린에너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국가대표를 꿈꾸는 청소년이 건네는 따스한 이야기

#요트 국가대표를 향해 열심히 꿈을 디자인하고 있는 김재훈 학생을 만나다!

"꿈은 계속 나아갈 때 가장 빛난다"

아동·청소년의 진로역량 강화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을 위한 "월드비전 꿈꾸는아이들 꿈디자이너 사업"



① 꿈디자이너에 참여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올해 출전한 '해양스포츠제전' 대회입니다. 그동안 여러 대회에 참가하며 메달을 따본 경험은 있었지만, 종목 전체 1등을 한 것은 처음이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② 꿈디자이너를 참여하며 나 자신이나 꿈에 대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운동선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스스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꿈디자이너 활동에 참여하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경험이 큰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운동을 계속하다 보니 스스로를 믿게 되었고, 이제는 운동선수라는 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③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연수가 되고 싶나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면,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다시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앞으로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린 선수들이 '나도 저런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멋진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월드비전 꿈디자이너와 복지관의 지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꿈을 찾고 지역사회와 함께 꿈을 디자인해온 아이들이 더욱 빛나는 미래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다음 장을 색칠하다

신(新)노년 세대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건강한 노년기 진입 지원 사업
인생을 칠(漆:CHILL)하다

서부복지관에서는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과 관계망이 줄어드는 전환기의 시기에 놓인 신(新)노년 세대를 위해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며 건강한 노년기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참여자 정순미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 본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의 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칠(漆:CHILL)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순미입니다. 요즘의 저는 복지관에 다니며 젊음을 다시 되살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기에 더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며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천천히 열어가고 있습니다.

2. 여러 활동 중에서 특히 마음에 남아 있는 순간이나 장면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기억에 남는 활동은 볼링 활동이었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해 보니 생각보다 몸이 잘 따라주었고 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내 안에 이런 에너지가 남아 있구나'라는 기분 좋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3.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전의 나와 비교했을 때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앞으로의 삶을 즐겁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지금은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깨달음은 일상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4. '인생을 칠(漆)하다' 프로그램은 어떤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나요?

"인생을 칠(漆)하다'는 2025년 한 해를 보람차게 채워주고 제 삶에 새로운 색을 입혀준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고 어느새 가족이나 형제보다 더 깊이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만 열고 열정을 담는다면 무엇이든 다시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화려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5. 노년기를 앞두고 있거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배우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아온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노년이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기대해도 괜찮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다시 배우고, 다시 웃고,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한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인생의 다음 장을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채워가시길 응원합니다."



“이동복지관과 걸어온 3년, 행복으로 채워진 시간들”

화성특례시 5개 종합사회복지관은 2023년부터 이동복지관사업을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서부복지관은 지난 3년 동안 서부지역에 위치한 곳곳의 마을을 방문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한 곳에서 만난 우리

각자 살아가는 곳은 다르지만 이동복지관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의 어색함도 잠시 사진 전시회 속에 담긴 장면들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의 지난 추억을 천천히 되짚고,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나누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동복지관이란?

‘이동복지관’ 5행시를 발표하며 그동안 이동복지관 사업이 전해온 따뜻한 발걸음과 의미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 웃을 향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했습니다.
- 동** 떨어진 마을, 놓여진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 복** 지의 손길은 차별없이 거리를 좁히는 다리가 되었고
- 지** 역안에서 함께 웃고, 배우며 공동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 관** (官)과 민(民)이 함께 만드는 변화, 바로 ‘이동복지관’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이동복지관은?

이동복지관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에서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를 통해 마을 곳곳에서 이어졌던 다양한 활동들이 다시 한 번 되살아났고, 발표자들 또한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활동의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아낌없는 응원과 따뜻한 격려를 전한 주민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 되어 마을 공동체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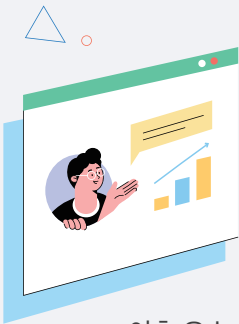
♥ 이동복지관사업은 주민들에게 든든한 이웃이 되어 외롭지 않은 일상을 선물하고, 사람과 마음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이동복지관사업은 앞으로도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동복지관사업이란?

원거리 거주 주민의 복지접근 한계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기록으로 돌아본 시간, 그리고 다음을 향한 걸음”



서부복지관 이웃보듬팀은 한 해 동안 진행해 온 사례관리를 되돌아보고, 그 과정과 의미를 공유하고자 사례발표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발굴된 취약계층과 상담·지원 현황을 한눈에 살펴보고,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고,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이웃에게 다가가지 못한 아쉬움 또한 남아, 앞으로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우수 사례 2건을 발표하며 각 사례의 개입 과정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례의 시작부터 변화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돌아보며, 당시의 판단과 선택들을 차분히 되짚어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때는 이렇게 접근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함께 떠올랐지만, 이를 통해 사례관리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개입 방식을 자연스럽게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례발표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잘했던 부분과 부족했던 부분을 함께 마주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돌아봄을 감정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지역사회 어딘가에서 여전히 소외된 이웃의 하루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후원금 수입·지출현황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입		지출	
전년도 이월금	27,091,460원	결연 후원금	25,000,000원
일반후원금	16,572,782원	기타 프로그램	25,001,295원
결연 후원금	35,800,000원	외부지원사업	160,195,835원
모금함	532,320원	운영비 (CMS)	707,975원
외부지원사업	165,353,250원	합계	210,905,105원
합계	245,349,812원		

후원물품 수령 및 배분내역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령		배분	
후원물품	52건	재가가정지원	49건
		복지관운영지원	69건
		경로식당	15건
		아동청소년센터	3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건
이월품	163건	지역사회나눔	5건
		유관기관 자원연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7건
합계	215건	합계	149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수입		지출	
비지정후원금	4,951,000원	운영비	3,867,405원
전년도 이월금	10,763,553원	사업비	8,481,370원
예금이자	2,382원	합계	12,348,775원
합계	15,716,935원		

후원물품 수령 및 배분내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수령		배분	
후원물품	53건	후원물품	60건
합계	53건	합계	60건

아동청소년센터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아동청소년센터	
수입		지출	
비지정후원금	2,400,000원	운영비	-
전년도 이월금	500,000원	사업비	1,200,000원
이월금	3,190,383원	합계	1,200,000원
예금이자	1,530원		
합계	6,091,913원		

후원물품 수령 및 배분내역		아동청소년센터	
수령		배분	
후원물품	36건	후원물품	36건
합계	36건	합계	36건

가까워지는 한걸음

후원자 & 자원봉사자 명단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5년 6월 ~ 2025년 12월

개인 후원자

강명은, 김경태, 김나행, 김남재, 김동규, 김동해, 김란연, 김미숙, 김미주, 김민경, 김부연, 김영희, 김옥자, 김진웅, 김태형, 김학범, 김형태, 김형식, 남광훈, 남소임, 당현중, 민영순, 박미숙, 박민정, 박은정, 박춘성, 박희룡, 백기연, 서미경, 서영순, 서유주, 신두현, 신명화, 신미자, 신유림, 신의영, 신진수, 신태훈, 신현숙, 신화영, 심민지, 안경수, 양도영, 양연희, 오은정, 윤정원, 이동식, 이순자, 이순희, 이영성, 이영순, 이진희, 이호승, 임규태, 장경의, 장종희, 전희정, 정바울, 정부선, 정소영, 정수지, 정신자, 정은아, 정준희, 정진경, 조민호, 조상민, 조상학, 최가은, 최승희, 최은영, 최정민, 최호진, 한동열, 허 승, 홍명화, 홍예원, 홍정실

단체 후원자

(㈜화기공, ㈜동신, ㈜새솔, ㈜서연렌탈, ㈜성호스틸, ㈜성환공구, ㈜세이프티, ㈜에스와이프드, ㈜에어택, ㈜유성분체기계, ㈜한신,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경기도의회, 경기서부새마을금고, 고향이불베이커리, 골든워시, 농어촌상생협력재단, 담담, 대한사회복지회,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산아래참송이, 송산성수전원교회, 웨프강정열의차이나, 아이들과미래재단, 여송사회복지재단, 예방비투비, 월드비전(경기남부지역본부), 지구대표에어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캐논코리아(주)경기지사, 케이워터기술(주)화성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 송산글로벌교육연구센터, 화성시사회복지재단,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화성시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화성시시립남양9단지어린이집, 화성시시립서부북합어린이집, 화성시시립에미지어린이집, 화성시시립우미린별빛어린이집, 화성시시립호반맑은샘어린이집, 화성시시립아름답복지관, 화성시약사회, 화성시청햇살어린이집, 화성아름마을, 희망친구기아대책

봉사자

강민자, 강정희, 고재희, 권유진, 김동수, 김미숙, 김미연, 김미영, 김미옥, 김병수, 김상현, 김소영, 김운섭, 김윤정, 김정은, 김정현, 김지훈, 김태연, 김한숙, 김향미, 김희동, 도옥호, 문자영, 박민영, 박양자, 박주영, 박형욱, 백준일, 서정욱, 손아정, 송정민, 송현진, 신명화, 신미자, 신의영, 신화영, 양연희, 양혜린, 연은영, 우명지, 유선화, 유원재, 이금옥, 이남진, 이미정, 이사무엘, 이시후, 이영란, 이요섭, 이은수, 이재영, 이지희, 이채린, 이현재, 이혜란, 이희범, 임서인, 장예린, 장종희, 전성순, 정미영, 정순미, 정승인, 정채영, 정현덕, 정희경, 조정선, 조동원, 조명환, 채명희, 최동찬, 최영빈, 최영애, 최예은, 최유찬, 한수빈, 홍현안, 황경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후원처 천주서리수녀회 섬리나눔의 집, 파리바게트 화성사강점, (사)더함께새희망, 대주푸드, 대하정공, 궁 잔가지떡 향남점, 일급화성자동차정비검사소(주), 베리키피트, 주식회사원인텍, 바이제이, 율희정마음건강연구원, 화성다솜봉사회,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베이비갈랑, (주)신사랑, 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

봉사자 이정후 윤희정

아동 청소년센터

후원처 경기과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화성시자원봉사센터,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삼성전자 사회공헌센터

모금함

OK할인마트, 눈뚜령밭뚜령, 효성익원, 아울렛마트, 럭키할인마트사강본점, 럭키식자재할인마트, 복지관모금함



'함께' 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우리, 서부복지관과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 함께 해주세요.



- 아동·청소년 지원활동(프로그램보조, 멘토링 등)
- 어르신 지원활동(경로식당, 도시락배달, 이·미용서비스 등)
- 기타활동(복지관 행사지원, 행정업무 보조, 단순도움활동 등)
-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외부활동 이용자 케어, 재능기부 등)
- 아동청소년센터(학습멘토링, 재능기부 등)



“후원” 함께 해주세요.

- 일반후원** 복지관의 후원계좌에 후원금을 이체하여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 CMS후원** 후원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 전자결제로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 1:1결연후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1:1 결연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 특별후원**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물품, 차량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 물품후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가전제품, 주·부식 등 생활에서 필요한 물품을 나눔합니다.

복지관 후원계좌 (예금주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농협 355-0046-1119-43 / 기업 927-017510-01-018

아동청소년센터 후원계좌
농협 355-0076-6192-63 (예금주 : 화성시시립서부아동청소년센터)

사회복지법인 원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지역주민의 일상 속에 늘 서부복지관이 있겠습니다

본관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사강로 145
 T. 031)366-7390

**남양
센터**

남양센터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중앙로 419
 남양뉴타운LH2 0단지아파트 2002동 1층
 T. 031)366-7391

**비봉
센터**

비봉센터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새비봉남로 40
 화성비봉LH4단지 아파트 408동
 T. 031) 356-7393